

해외 주요도시 코로나 경제난 타개책 살펴보니

빛 상환유예·임대료지원·稅 감면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암스테르담시, 부채상환 일시정지 오스틴시,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

세계 주요도시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상환유예제,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가계부채로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2만5000여 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의 평균 연채액은 2만6000유로(약 3502만원)에 달했다.

장한빛 통신원은 "부채 상환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함께 연체액이 급증해 경제적 악순환이 심화된"다며 "특히 생계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5000여명은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한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50유로(약 6만원)에 불과해 평생을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스테르담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연체액이 늘어나 가계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시정지' 버튼 제도를 도입했다. 일시정지를 요청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액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AP·뉴시스

이달부터 전기·상하수도 징수업체와 보험사, 주택 임대업체는 요금 납부 독촉 우편 발송 후 30~100일 이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시가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를 포함한 지원과 상담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스틴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 기준 오스틴시가 속한 텍사스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3만7303명, 사망자 수는 2만8753명으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텍사스주에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0만명이었다. 특히 작년 10월 실업률은 6.9%로 전년 동기(3.5%) 대비 약 2배였다.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은 2019년 12월 31일(코로나19 이전) 기준 지역중앙 가구소득(지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의 8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스틴시는 지난달 10일 기준 3516가구에 총 915만1156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했으며, 가구당 평균 1100달러(약 121만원)를 지급받았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봉쇄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겪은 택시·버스 등 교통업계와 건설업계 종사자에게 작년 상반기 5000루피(약 7만5000원)를 지급했다. 빈곤지역 거주자가 연체할 수도요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1회에 한해 면제해주고 연체료도 감면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CES2021 서울관 조성... 15곳 솔루션 소개 (소비자가전쇼)

글로벌 관계자 서울관 참여 극대화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CES에서 서울관을 조성하고 관내 15개 기업의 솔루션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CES(소비자가전쇼)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월 CES 유레카 파크에 서울관을 만들고 20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 1629만달러(약 177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CES 온라인 전시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자체 온라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병행해 글로벌 관계자의 서울관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을 소개하는 웹 세미나 'CES 2021 서울 트레일러', 전문가 대담으로 구성된 '라이브 CES 서울', CES 2021을 분석하는 '리뷰 CES 서울'이 마련됐다.

CES 2021 서울관은 CES 공식 온라인 전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남산공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운행

서울시는 남산공원을 경유·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순환버스는 남산공원, N타워, 명동, 서울역, 인사동, 경복궁 등 도심 내 주요 지점과 관광명소를 오가는 버스다.

서울시는 남산공원을 '대기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단체 관광객 수송용 경유버스 차량의 진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정상부 관광버스 장기 주·정차로 인한 불

편, 공회전 및 매연 발생, 소음 문제, 보도·자전거도로 침범에 따른 이동 불편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남산공원 내 관광버스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시민 불편 사항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남산공원을 이용한 관광객은 약 98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내버스·관광버스로 남산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은 약 431만명으로, 전체의 약 43.9%였다. 같은 기간 관광버스 통행량은 5만8000대로, 일평균 160대 수준이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복꾸러미'

올해 출생아부터 선물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에 아기용품 선물하는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자녀가정 혜택 다양화'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자녀 가정의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다복함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다복(多福)꾸러미'는 고양시노인일자리 전달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손수 만든 아기용품 7종으로 구성되며, 모두 신생아



다복꾸러미

에게 무해한 친환경 오가닉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물품들이다.

다복(多福)꾸러미 신청은 자녀 출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서비스원, 격리시설 돌봄인력 지원

장애인·어르신 위한 인력 지원 코호트 격리 시설에 동반 입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코호트된 노인·장애인시설이나 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서비스원은 설명했다.

서비스원은 코호트 시설 내 음성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노인,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키기로 했다. 24

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담당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어르신,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을 때만 동반 입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에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원은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하면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

에 인력을 투입한다. 서비스원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인력 모집은 6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도내 210개 중소기업에 '202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발굴·인증해 지역경제

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2020년에는 672개 기업들이 신청해 약 3.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인증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초인증 분야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분야 44개사 등 총 210개사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9

1월 6일 (수) 음력 : 11월 23일

수도권 날씨 -11 ~ -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3, 동두천 -15/-2, 가평 -16/-3, 파주 -18/-2, 서울 -11/-2, 양평 -13/-2, 수원 -9/-3, 용인 -9/-3, 평택 -14/-1, 백령도 -6/-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